

報道資料



보험개발원

제공일자	2007년 10월 5일	
담당자	양성문 동향분석팀장	368-4175
홍보담당	이정환 선임연구원	368-4093
※ 총 5 매		

※ 2007. 10. 8(월) 조간부터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개발원, 『주간해외보험동향』 코너개설 및 회원메일링서비스개시

보험개발원(원장: 정채웅)은 10월 8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주간해외보험동향』이라는 코너를 신설하여 매주 제공하기로 하였다.

금번 조치는 정채웅 신임원장의 보험연구소의 해외보험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보험회사들의 해외보험시장에 대한 정보수요에 대응하고 내부적으로는 해외보험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주간해외보험동향』 코너는 매주 월요일에 제공할 예정이며, 북미, 유럽, 일본, 중국 등지의 보험관련 뉴스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다루되 기타 신흥보험국의 시의성있는 뉴스와 보고서를 부정기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홈페이지와 회원이메일을 통해 제공하던 보험동향 중 『일본·중국보험뉴스』 코너는 금번 신설되는 『주간해외보험동향』 코너에 통합되게 된다.

1. 코너이름 : 주간해외보험동향
2. 주 기 : 매주 초(주간발간)
3. 내 용 :
 - 북미, 유럽, 일본, 중국 등지의 보험 및 경제·금융관련 뉴스 또는 보고서
 - 기타 신흥보험국의 시의성있는 뉴스 또는 보고서
4. 배 포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및 회원메일링서비스

앞으로도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는 보험업계와 보험소비자들에게 유익한 보험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시의적절한 보고서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주간해외보험동향』 샘플은 첨부참조).

<첨 부> 2007년 10월 8일자 『해외보험동향』 일부

□ 미국의 건강보험 미가입자 증가 문제

- 보험미가입자 옹호단체인 Families USA는 2006, 2007년 기간 중 65세 이하 인구의 1/3 이상이 부분기간 또는 전기간동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함.
 - 연구결과에 따르면 무려 8900만 명의 사람들이 기초건강보험을 충분히 가입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2006년 인구통계국(Census Bureau)에서 발표한 숫자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임.
 - 국가 의료프로그램을 관할하는 상원의원 Max Baucus는 “9000만 명에 가까운 미국인이 기초건강보험 부족으로 지난 2년간 질병과 상해의 공포 속에 살아야만 했다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언급함.
- Families USA의 1999, 2000년 기간의 연구에 비해 보험미가입자는 1700만 명이 늘어난 것이며, 가장 큰 원인은 보험료의 증가인 것으로 보임.
 - 인구통계국(Census Bureau)에서 가장 최근에 조사한 수치에 의하면 2006년 건강보험미가입자는 4700만 명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1년 중 전 기간에 걸쳐 미가입 상태인 사람들만을 조사했기 때문임.
 - Families USA는 그들의 결과가 부분기간동안 보험 미가입자였던 사람들도 포함했기 때문에 더 정확한 추정값이라고 주장
- 건강보험 미가입 인구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순으로 많았으며 풀타임 근로자도 많은 것으로 조사됨.
 - 2006, 2007년 기간 중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인구는 캘리포니아에서 1300만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캘리포니아 주민구의 41%에 달하는 수치임. 또한 텍사스는 930만 명으로 2위를 기록
 - 이 들 중 70%는 풀타임 근로자였으며 50%는 2006, 2007년 기간 중 9개월 이상 건강보험 미가입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미가입자가 풀타임 근로자였다는 사실은 그들이 빈곤층이어서가 아니라 단지 그들의 봉급으로 건강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면에서 주목할 만함.

□ EU, 자동차보험 연계 텔레매틱스 시장 거대 성장 전망

- 자동차보험과 연계된 텔레매틱스* 시스템의 유럽내 시장규모가 2015년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세계적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Frost & Sullivan의 텔레매틱스 연계 보험시스템 관련 유럽시장의 전략분석에 따르면, 동 시장의 하드웨어(단말기 및 시스템) 수익은 2007년 250만 € 에서 2015년에는 약 4억 8천만 € 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 텔레매틱스는 운송수단에 무선통신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로, 특히 자동차 텔레매틱스 서비스는 이동통신기술과 위치추적기술을 자동차에 접목시켜 차량사고, 도난감지, 운전경로 등을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해 줌.
- 이는 주로 2010년 시행 예정인 eCall** 텔레매틱스 의무장착 규정, GPS(Global Positioning Systems) 시장의 전반적 성장 등에 따른 결과이며, Norwich Union사의 PAYD(pay-as-you-drive; 주행거리별 보험료차등) 방식의 상품은 유럽에서 처음 시판됨.
- ** eCall(emergency call)은 EU지역 어디에서나 자동차사고 발생시 신속구조를 위해 EU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차량내 설치한 블랙박스를 통해 무선으로 에어백전개와 임팩트 센서 정보를 전송하고 GPS가 지역 긴급구조센터에 연계하는 시스템임.
- EC의 eCall 의무장착 법안에 따른 2010년 9월 모든 신규차량의 eCall 시스템 장착 의무화 및 PAYD 상품도입과 맞물려, 텔레매틱스에 연계한 보험상품의 성공여부는 회사가 저렴한 가격을 제시함과 동시에 다양한 텔레매틱스 용도를 1개의 장치로 통합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음.
- 동 시스템을 이용하여 차량의 경로와 속도 추적이 가능하므로 보험회사는 보험사기를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사고 빈도가 비교적 낮은 단거리주행 운전자 및 저연령대 운전자를 타겟으로 보험료 절감 등 효과적인 마케팅을 통해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 것임.